

교차로

특가

정토사 청담불교재단에 기탁
설산 정토사 주지는 종로구 평창동 소재 정토사와 부속재산 일체를 청담불교재단에 기탁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9일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청소년불자와 관련단체장들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개최
월파 통도사 주지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법종흥을 위한 화엄산림대법회를 5백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자원봉사자·후원인 송년의 밤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은 1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해인강원 동문화 정기총회
태원 해인강원 제12회 동문화장은 17일 해인사 길상암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동남아 노동자 송년의 밤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인 주지는 20일 오후 5시 동남아 불자 노동자들을 위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농인선원 개원 14돌 기념법회
지광 농인선원 주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개원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통일염원 '제아의 종' 타종
장산 부산 동명불원 주지는 1999년 새해아침 민족통일 국토통일을 염원하는 제아의 종소리를 31일 밤 11시부터 거행, 자정에 타종식을 한다.

생보자등 무료법률상담
진흥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장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2층 상담실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서울 녹번동에 달마선원 개원
도각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 회장은 서울 녹번동 24-10번지에 달마선원을 개원, 26일 오후 2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달마선원은 청소년들의 선 심리 지도와 명상 수련도장으로 활용된다. (02)382-4787



“북녘산하서 느낀 통일염원 詩로”

‘고은 시의 밤’ 성황

16, 17 이틀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 ‘고은 시의 밤-산하, 하나의 산하’는 분단의 아픔과 민족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민족시인 고은의 절절한 ‘시랑’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두 달간 북한을 기행하면서 쓴 시를 발표하는 자리. 고은 시인은 시작(詩作) 40년의 회한을 담은 ‘나의 시’를 비롯해 통일의 염원을 담은 ‘금강산’과 ‘묘향산’ ‘만월대’ ‘원산 송도원’ 등 우리 산하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눈길을 담은 10편의 시를 낭송했다. 고은 시인의 시낭송 중간중간에 국악과 가요공연이 함께 했으며, 고은시인과 함께 금강산을 다녀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희준 교수의 설명으로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도 이어졌다. 또 시인 안도현과 도종환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시낭송이 이렇게 종합예술적으로 공연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고은 시인은 “자리를 가득메운 관객들 앞에서 통일의 벽차 오르는 감정을 또다시 느꼈다”며 “놀라운 통일이 아닌 익숙한 통일을 염원하고 그 통일의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다”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장애인 도울 식량·의류·학용품 절실”

‘캄’서 구호활동 경일스님

캄보디아 문화종교부 인가 자선 구호단체인 한·캄 불교센터 대표 경일스님(재천 청해사 전 주지). 지난 5년 동안 매주 한번씩 캄보디아 프놈펜 시 장애자 1천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경일스님은 구호물자 마련을 위해 지난달 일시귀국했다가 15일 출국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는 1970년 킬링필드 사건과 당시 UN군이 설치한 지뢰 등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와 장애인들이 80만명에 이른다”며 한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는 1970년 킬링필드 사건과 당시 UN군이 설치한 지뢰 등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와 장애인들이 80만명에 이른다”며 한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원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

고은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는 스님은 양수기와 캄프를 사와 당장 급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지난 5년 동안 무료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님은 “캄보디아에는 식량과 의류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가방, 신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뜻있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018-611-4278, 캄보디아 001 또는 002)855-18-820-008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인터넷 화상법회 추진”

가 대각선원 양일스님



캐나다 대각선원 주지인 양일스님이 지난 5일 자료수집차 일시 귀국했다.

“내년 3월부터 캐나다 대각선원, 뉴욕 원각사, 필리핀 대각선원, 영국 마하보리소사어터 등을 연결해 인터넷 동시 화상법회 열 계획”이라는 스님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www.ninemountainszengate.on.ca)를 개설해 대각선원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스님은 미국 뉴욕 맨허탄에 불교회관 건립 불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봄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16일 출국했다. 이은자 기자(eelee@buddhania.com)

“남을 위한 삶 살아 보세요”

‘자원봉사’ 서울시장상 김규순 보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와 자원봉사는 저의 수행방편이죠.” 19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19일 송실대에서 개최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 사단원 김규순(60·법명 원덕화) 보살. 김보살은 사회복지재단 간

병봉사교육 7기 수료자로서, 지난 9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재활원에서 매주 화요일 환자 목욕시키기, 시트교환 및 빨래, 운동보조 등의 자원봉사를 변함없이 펼치고 있다. 김보살은 환관이 지난 나이에 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원 임명(60·법명 원덕화) 보살. 김보살은 사회복지재단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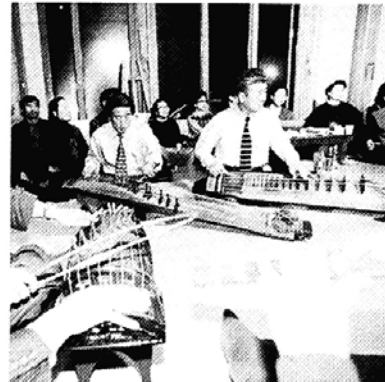
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한번도 목욕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돼 기도와 자원봉사에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했다. 타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에서 온갖 마음고생들

겪으면서도 타종교인들의 달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위해 수요사에서 ‘성훈따주기(집술)’를 배우고, 미용기술도 익혔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힐 토피가 없다. 김보살의 원찰인 서울 상계동 보문사 주지 스님이 “나이를 생각해 이젠 쉬라”고 권하지만 4~50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즐겁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거예요.”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피아노와 국악기가 만나면...

서양악기 피아노와 한국악기인 대금 거문고 등이 만나면 어떤 색깔의 화음을 빚어낼까? 15일 경기도 안성 풍곡마을에 위치한 불자 음악인 임동창씨의 집에는 국내 유명국악인들이 총출동했다. EBS FM(104.5MHz) ‘우리기락 노래가락’(PD 신장식)이 27일 오후 2시 송년특집으로 방송할 피아노연주와 우리기락을 접목시킨 ‘임동창의 피아노 풍류방’ 녹음을 위해 마련한 자리.



이날 녹음현장에는 대금의 명인 이생강씨와 아쟁의 달인 백인영씨 등이 임씨의 피아노반주에 맞춰 상승 ‘눈이 나리네’와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곡 등을 연주해 자리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중불교협 신재부씨 별세



중국불교협회 신재부 부비서장이 11일 6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조선족 민족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기도 했던 신씨는 한국과 중국간의 불교교류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왔다.

교차로

재가

국악원서 구순축하공연
김천홍용(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은 16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구순 축하 공연을 가졌다.

법사회 사무실 이전 개원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통국대 교수)은 법사회 중앙법당을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1238로 이전, 20일 이전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02)499-1671

종교협 창립 33돌 기념식
이재석 한국종교협의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종교협의회와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생 서예대전’ 심사위원회
조기동 용곡서예원장(광주 금강사 신도회장)은 최근 김생추모 전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에 추대됐다.

우리는선우 송년 법회
박광서 우리는선우 대표는 17일 우리는선우 사무실을 장충동 1가 34-7번지 오양빌딩 2층으로 이전하고, 29일 오후 5시 이전 기념 겸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2)278-8672

통일문제 주제 문화강연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중앙회장(은평구청장)은 15일 서울 은평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적 시각에서 본 통일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저시력인 능력개발 연구
미영순 정치학박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소망타운 3동 3층 35호에 ‘저시력인 능력개발 연구회’ 사무실을 개설, 99년 1월 5일 개원식을 갖는다. (02)265-3303

부산불교교육원 동문의 밤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은 19일 코리아나 뷔페에서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대불부 부산지구 회장에 유임
김수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17일 부폐시에서 가진 제23대 임원 추대식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차기 회장으로 유임됐다.

현대문학상 수상자에 선정
장석남 시인은 14일 월간 <현대문학>이 주관하는 제44회 현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Year (1년, 2년) and Course Name (교과목). Lists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and their instructors.

Table with 7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 Buddhist university.

4. 입학 일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충무원 1층 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서울: 보림각(조계사암) ☎ 02)733-0333
대주: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광주: 불일서점 ☎ 062)232-7542
부산: 불서보급사 ☎ 051)246-4321
대전: 보문서점 ☎ 042)257-0161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법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비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착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락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통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